

내외



소식

배수열 형제, 안경 생산공장 설립

지난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간 배수열 형제가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 안경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대구에서 안경점을 경영한바 있는 배형제

는 미국에 들어가면서 부터 안경점을 경영해 왔는데 이와는 별도로 안경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

형제는 부산 지부 지부장단, 대구 중앙 지부장, 영남 지방부장단을 역임한 바 있다.

교포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함께 읽는다.

加州서는 선글래스 必要

배수열씨, 안경生産工場 신설

이지역 교포사회에서 유일한안경점을 경영해오던 배수열씨가 이번 안경점과는 별도로 안경생산공장을 새로 차려 4월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배씨가 3255 첩서블리마드에세운 안경공장은 새로운 주로콘택트·렌스를 포함한 안경렌스일체를 생산 미국인 안과병원에 공급할 것이라 한다.

배수열씨는 24일 이와 같은사업계획을 밝히면서 종업원도 약 15명은 쓸수있



(배 수 열 씨)
개된다고 안경공장의 규모를 설명해 주었다.

지난 3년간 시내 10724 워싱턴·블러바드에서안경점을 직접경영해온 배씨가 렌스제작에 손을댄것은 미전국을통해 안경수요자가 장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광범한 안경시장을 노린것— 전에 솔트·레이크에서 공장운영 경험에있는 배수열씨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공장운영을 성공시켜 보겠다고 큰 의욕을표보인다 배씨가 미국에온것은 5년전. 이곳에오기전에도미국서 12년동안 안경상을 운영해온 경험을 가지고있다.

배수열씨는 그동안 안경점을경영해온 산체험을 통해 다음과같이 시력보호를 위한 조인을 틀러주면서교포들을위해서는 검안이나안경제작등에 많은번의를 봐

주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햇빛이강하고 스모그가 많기때문에 눈을 상하기 쉬운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눈에맞추어 안경을끼거나 선·글라스를끼고 다니는사람이 많지요" 이럴경우 교포들 가운데는 영어가 서툴러 자기눈에맞지않는 안경을끼고 다니는 예를 많이봤다면서 배씨는 이런분들을위해 정확한검안과 개인에맞는안경을맞추는데 자신을 펴보이기도했다.

"검안을 제대로하러면최신식기계는 물론이지만 정밀검사용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격없는대화가오 가야 한다" 는것을 배씨는 역설하면서 안경을새로 맞추어건후 어지럽거나 약간 불편한사람은 언제든지 문

의해주기를 바랐다. 특히교포들 가운데 바느질이나 편물등의 일하는부인들은 자기모모르는 사이에 눈을 버리는때가 많았던서 배수열씨는 이들에대한조기진단을 적극권했다. 그다음 교포들이 선·글라스를 살때는 배화점이나 마켓등에서 판매하는 싸구려안경을 사지말고 안경점을찾아 검안을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에따라 자기눈에맞는 색안경을쓰는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한일이라고배씨는 몇번이고 반복한다. 배수열씨는. 작년 거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옵티시언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검안이나 안경제작에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다고 ☎ 870-2848 안경점 487-0925 (공장).

영남 지방부 청소년 중창 대회 갖다.

지난 4월 27일 토요일 영남 지방부 아론 신권 상향회에서는 봄맞이 행사로 부산 지부 상호 향상회 활동실에서 「청소년 중창대회」를 가졌다.

전 영준 형제와 박순주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 노래 잔치는 부산 지역의 4개 지부에서 9개 팀이 나와 노래 솜씨를 겨뤘는데, 동구 지부의 장미반 소녀로 구성된 「피꼬리」팀이 「로렐라이」등 3곡을 불러 영광의 「예지상」을 획득했고 동래 지부의 「땡」팀은 「술기상」을, 부산 지부의 「바이오렛」과 「들장미」팀은 각각 「장함상」을 받았다.

한편 성실한 준비로 여러 팀을

출전시킨 동래 지부는 「모범 지부상」을 받았는데, 시상식에서 장재환 지방부장은 청소년들의 훌륭한 재능을 칭찬하고 말일성도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으뜸이 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남 지방부, 청소년 합동 노변의 모임 갖다.

지난 5월 5일 금식 주일 저녁, 부산 지부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의 합동 노변의 모임을 가져 봄을 소재로 한 좌담과 「젊은이가 추구할 가치성」이란 문제를 놓고 함께 진지한 토의를 했는데 참여한 소년 소녀 모두가 오늘날 청소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라는 답을 스스로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하였던 상향회 성인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고 상향회 무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뜻있게 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신학 연구원 기사, 주간 종교지에

지난 5월 15일자 주간 종교 신문에는 한국 신학 연구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신학 연구원의 목적과 현황 등 자세히 보도된 이번 기사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활동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기사를 함께 읽는다.



신학 연구원은 지난 5월 15일자 주간 종교 신문에는 한국 신학 연구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신학 연구원의 목적과 현황 등 자세히 보도된 이번 기사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활동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기사를 함께 읽는다.

물몬경의 神學 연구원
平信徒 위주, 宣教師 양성 이 목표
세계에 4천7백개소 한국에는 72년에 설립

물몬경의 神學 연구원은 지난 5월 15일자 주간 종교 신문에는 한국 신학 연구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신학 연구원의 목적과 현황 등 자세히 보도된 이번 기사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활동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기사를 함께 읽는다.



○물몬경의 선교사 양성기관인 한국신학연구원의 강의장면.

장 원길 형제 선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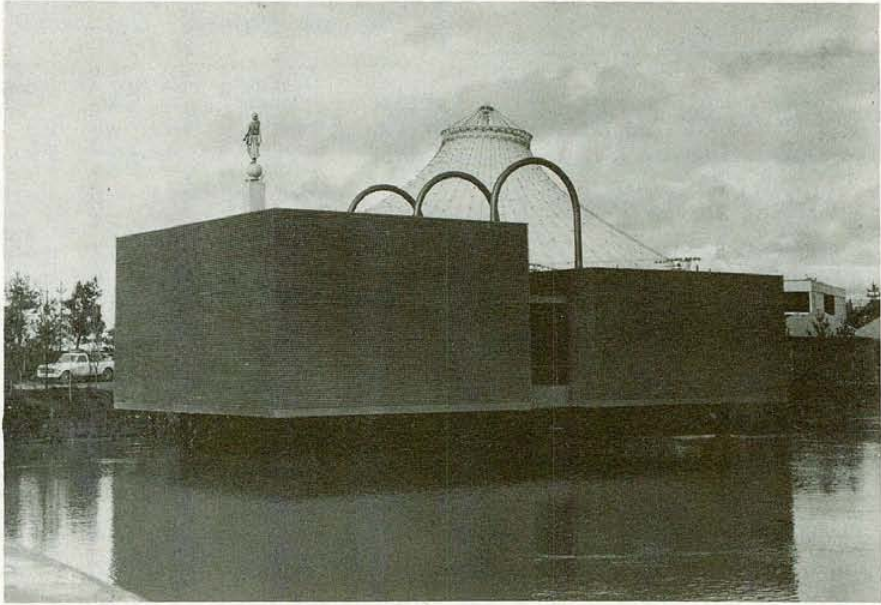
서울 스테이크 제5와드의 회원인 장 원길 형제는 지난 5월 3일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의 첫 임지인 서광주 지부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 기호 형제의 막내 아들인 장 원길 형제는 부친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받아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선교사의 역할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며 신앙의 본질이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의 굳은 간증을 피력했다.

엑스포 74의 물몬경 전시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워싱턴 스포케인에서 개최되는 1974년도 만국 박람회의 공식 개막일을 사흘 앞둔 5월 1일 물몬경 전시관을 헌납하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물몬경으로 번역된 금판의 모양을 본따 건립된 이 전시관의 헌납식에는 약 2,700여명이 참석하였다.

만국 박람회의 전시장은 스포케인강 양변의 100에이커와 두개의 작은 섬 위에 펼쳐져 있다. 교회의 전시관은 박람회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와 약간 떨어져 있다. 전시관은 밀과 연결된 교각 위에 세워져 전시관 밑으로 스포케인강이 흐르게 되어 있고, 그 입구는 해안에서 20피트 지점에 있다. 입구 근처에는 9피트 높이의 모로나이 천사의 상

이 서있다. 물몬경 전시관을 세운 목적은 방문자에게 물몬경의 메시지와 생동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데 있다. 피터슨 장로는 전시관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지금 참으로 위대한 선교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여러 만국 박람회에 교회가 참여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뉴욕 박람회와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박람회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장로는 특별히 오사가 박람회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했다. "박람회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개종함에 따라 스테이크와 선교부가 여러 개로 나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일본 뿐만 아니

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라 아시아 전역에 미쳤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문자들은 여러분께서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전시관은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았읍니다. 그들을 이끌어 준 길잡이가 되어 왔읍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느 전시회에서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만국 박람회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1974년 만국 박람회의 주제로 물문경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물문경이 우리 백성들에게 특이한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요셉 스미스 이래로 중남미 여러 곳에서 48개의 돌상자가 발견되었고 고고학자들은 전세계 70여 곳에서 금속판을 발견하였지만 우리의 기록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록과 다른 것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라고 피터슨 장로는 말했다.

이번은 교회가 최근에 전시관을 개설하고 참여한 네번째 만국 박람회이다. 첫번째는 1964년과 65년에 뉴욕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로 그때의 방문자는 600만명에 달했다. 1968년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물문관 방문자는 65만이었다.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의 물문관 방문자는 무려 700만이 넘었다.

1974년도 박람회에서는 교회 전시관의 규모가 가장 작지만 26명의 복음 선교사와 200명의 스테이크 선교사가 봉사를 자원한 점에서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관에는 2개의 소

형 극장과 개관중인 낮 12시간 동안 매 25분마다 50명씩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 관계자는 물문경 전시관을 방문하게 될 사람이 약 48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고대 미대륙은 말한다”가 본 전시회의 주제이다. 전시관에는 물문경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과 고대 미대륙에 관한 경전인 물문경에 근거를 둔 3면 자동 투시화가 전시된다. 두 편의 영화 “고대 미대륙은 말한다”와 “물문 소개”도 상연될 예정이다. 또 다른 전시물로는 라2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세계적인 탐험가 토르헤이어달이 사용한 갈대 배를 만든 볼리비아 기술자들이 다시 직접 만든 갈대 배를 들 수 있다.

전시회의 주제인 “고대 미대륙은 말한다”의 내용을 실은 소책자가 방문자들에게 배부된다. 이 소책자는 인근 선교부에서 선교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개관일에 물문 전시관을 방문한 사람은 1738명이었으며 148권의 물문경이 판매되었다. 비회원 방문객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이 대륙의 고대 백성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어느 사람은 말했다. “물문관은 만국 박람회가 영적인 수준에까지 승화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서울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의 대회가 지난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성대히 개최되었다. 11일에 있었던 신권 지도자를 위한 역원회에서는 계보 문제를 다루어서 많은 지

도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모임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제 3 와드 소속인 김 환덕 형제가 계보와 한국의 족보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어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귀중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성씨 문제를 그 기원부터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인 사대 프로그램과 기억의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보와 선조에 대한 우리의 정신 자세를 가다듬게 하였고 엘리야의 영을 느끼게 하였다.

이어서 12일에 개최된 스테이크 대회 일반 총회에서는 7와드에서 준비한 특별 찬송과 미국 연차대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서울 스테이크 제 8 와드 감독인 이 강우 형제의 특별 간증 순서가 대회를 한층 빛내 주었다. 스테이크 선교부장인 서원 형제의 말씀과 고등 평의원인 김 산 형제,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인 최 육환 형제와 김 창선 형제의 말씀을 듣고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대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자는 이번 대회의 주제를 통해 말일성도들은 모두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다짐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24명의 장로가 탄생되었으며, 지금까지 있던 3개의 장로 정원회가 해체되고 다시 각 와드별로 1개의 정원회가 조직되어 서울 스테이크는 그 산하에 모두 9개의 장로 정원회를 갖게 되었다.